

# 연우진 “아무도 없는 곳, 마음의 상처 보듬어준 영화”

김종관 감독 신작...소설가 창석 역할

“여백이 주는 공허함, 영화에서 채워”

극장에서 창석의 소설을 읽은 느낌이에요. 나와 닮은 구석이 많은데 가장 순수하고 진솔하게 연기했어요.”

김종관 감독의 신작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가 창석을 연기한 배우 연우진의 말이다.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만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은 삶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 영화라며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준 느낌이다”고 밝혔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서 공개된 ‘아무도 없는 곳’은 ‘최악의 하루’(2016), ‘더 테이블’(2016), ‘조제’(2020)의 김종관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창석이 카페, 박물관, 커피숍, 바 등 익숙한 듯 낯선 서울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듣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묶었다.

짧은 유니버스들의 연결, 대화의 향연 등 김 감독의 전작인 ‘최악의 하루’와 ‘더 테이블’, 넷플릭스 드라마 ‘페르소나’ 속 에피소드 ‘밤을 걷다’와 연관되는 지

점이 있다.

‘더 테이블’ 이후 김종관 감독과 재회한 연우진은 “감독님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지금의 시간, 공간 등을 비취 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작품은 서울의 명소는 물론 일상적이지만 비일상적인 요소가 담겼다. 공간이 주는 힘이 느껴지는 영화다”고 특기했다.

이어 “감독님과 는 말을 안 해도 전해지는 온정이 있다. 일하면서 만난 사람은 깊게 알고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은 인간 대 인간으로 더 알고 싶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감독님이 가진 생각과 고민을 알 수 있어 기쁘기도 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영화는 큰 사건 없이 각기 다른 고민과 아픔을 가진 여러 인물들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기억, 상실, 죽음, 늙음과 같은 소재를 문체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연우진은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와 완성본을 봤을 때의 느낌이 달랐다고 돌아왔다.

그는 “시나리오에서는 여백이 주는 공허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영화에서는

여백마저 꽉 채워졌다”며 “글 상에서는 유니버스의 구성이 크게 다가오고 삶의 관점으로 보게 되다보니 상실, 잊혀 가는 것, 쓸쓸함, 고독함에 대한 감정이 먼저 와 닿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이면에 있어서 창작자로서의 고뇌와 새로운, 나아가야 하는 동력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불분명하다. 매번 경계에 있는 영화라고 하시는데 관객들이 각자만의 해석과 해답을 제시하실 것 같다”고 했다.

창석 연기에 대해서는 “창석보다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영화의 색깔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한 무색무취의 캐릭터를 잡으려고 했다”며 “연기할 때 연우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 나오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날것처럼 보이려고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했다. 최대한 연우진스럽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시간을 잃은 여자 미영부터 기억을 사는 바텐더 주은까지. 연우진은 이번 영화를 통해 배우 김상호, 이주영, 윤혜리,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네 배우의 연기에 감탄했다”는 그는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컸다. 배우들의 눈망울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들의 얼굴을 뵈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다”고 돌아왔다.

아이유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처음 만나자마자 미영으로 다가왔다. 너무 놀랐다”며 “제가 빈 적은 없지만 나를 갖고 있는, ‘이 배우는 이럴 것이다’를 깨부순 첫인상이었다. 그 덕분에 영화 출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2009년 영화 ‘친구 사이?’로 데뷔한 연우진은 로맨틱 코미디, 멜로, 사극, 장르물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특히 ‘연애 말고 결혼’, ‘내성적인 보스’ ‘7일의 왕비’ 등에 출연하며 ‘모코 장인’이라는 애칭까지 얻은 그지만 자연스럽게 삶도 연기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한다. 촬영을 마친 작품만 3편이다. 제작년과 작년에 걸쳐 찍은 영화 ‘특송’, ‘복무하라’는 관객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JTBC 드라마 ‘언더커버’는 다음 달 방송을 앞두고 있다.

“로코를 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작품에 임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변해온 내 삶이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변했죠. 지금도 리듬감 있고 명랑한 인물을 잘할 수 있을까 싶네요. 앞으로 보여줄 3편은 이전의 연우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장르나 캐릭터가 가진 성격이 기존의 것보다 달라요. 신선하고 독특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 ‘강철부대’, 팽팽한 기싸움·오종혁 활약...3.19%로 출발

최정에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24인 등장



새로운 ‘군대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가 각 부대의 명예를 건 대결의 서막을 열었다.

23일 첫 방송된 채널A·SKY의 ‘강철부대’ 1회에서는 최정에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24인이 등장,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먼저 김성주, 김희철, 장동민, 김동현, 최영재, 김그림 ‘이탈의 소녀’의 슈등 특수부대 대적들의 승부 예측을 돕는 ‘전략 분석팀’의 첫 회동이 그려졌다. 김동현은 “남자들은 모였나 하면 군대 얘기다. 서로 군대 부심이 엄청나다”라며 해병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공감대를 표출했다.

이에 김희철은 “김동현과 강호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며 도발했고, 김동현은 “물에 따라 (다르다)”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부대별 대기실에 도착한 강철부대원들은 첫 만남에 서열을 가리며 ‘현역 모드’를 발동했다. 서로의 기수를 확인한 뒤 고참을 상석으로 모시는가 하면, 707(제707특수임무단)의 임우영은 “막내 되기 싫은데”라며 후임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707의 박수민은 후임을 앞에서 우뚝하니, 최고참 이진봉이 등장하자 반사적으로 경례를 외치며 군기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전략 분석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부대의 자존심을 건 팀격이 대결이 펼쳐졌다. 누가 먼저 도전할 것인지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중 UDT(해군특수전전단)의 유준서가 자원에 기대감을 올렸다. 이에 맞설 도

전자로 707의 이진봉이 나섰고,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악바리 근성을 드러내 현장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진봉에게 첫 승리의 영예가 돌아갔고, 김희철은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킨다”라며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육준서를 향해 찬사를 보냈다.

또 최강대원 선발전으로 ‘참호 격투’가 진행됐다. 이번 미션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1인에게는 팀 서바이벌에 유리한 베네피트(혜택)이 주어진다. 해 강철부대원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김성주는 강철부대원 특전사 박도현, 해병대수색대 정훈의 다부진 체격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1라운드의 탈락자 엄승철과 정성훈은 매의 눈으로 짚어내며 100% 적중률을 자랑했다.

2라운드에서는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 정태균, 해병대수색대 오종혁, 707 박수민, UDT 유준서, SDT(군사경찰특임대) 이정민, SSU(해난구조전대) 정해철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돋보이는 대결이 펼쳐졌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오종혁과 이정민의 대결이 현장엔 초조함과 응원의 함성이 뒤섞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육준서와 정해철은 오종혁에게 힘을 더하는 합동 전략으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음 주에 이어질 3라운드에서는 도전자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체격을 자랑하는 강철부대원들이 총출동한다는 후문이다.

한편 23일 방송된 ‘강철부대’의 1회 시청률은 3.19%(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 ‘유명가수전’ 이수근·규현 MC...싱어게인 TOP 3 다시 만나

TOP3, 선배 가수들 명곡 재해석·컬래버레이션 무대 선보여



‘유명가수전’ MC로 이수근과 규현이 나선다.

23일 JTBC에 따르면 오는 4월2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되는 ‘유명가수전’의 MC로 이수근과 규현이 확정됐다.

‘유명가수전’은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갓 유명가수’가 된 TOP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이 레전드 ‘갓(GOD) 유명가수’들과 만나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TOP3가 선배 가수들의 명곡을 재해석하고 그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싱어게인’ 제작진의 새로운 프로젝트다.

TOP3와 함께 유명가수를 만나게 될 2MC로는 이수근과 규현이 나선다.

‘아는 형님’을 통해 TOP3와 한 차례 인연을 맺은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이수근은 ‘갓 예능’에 입문한 TOP3와 유명가수들 사이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며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규현은 ‘싱어게인’의 주니어 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명가수전’에서는 TOP3의 음악적 동료 그리고 예능 선배로 활약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제작진은 “말고 보는 MC 이수근, 최고의 ‘예능돌’ 규현의 합류로 유명가수와의 만남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아직은 낯선 TOP3와 베테랑 MC들의 호흡이 신선한 재미를 자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유흥주점 논란’ 유노윤호, 엠넷 ‘킹덤’ 하차

그를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엠넷 ‘킹덤: 레전더리 위’에서 하차한다.

엠넷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유노윤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킹덤: 레전더리 위’ 녹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은 이후의 프로그램 MC 촬영은 최강창민 단독으로 진행하기

로 결정했다”며 “이미 유노윤호가 촬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편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오는 4월1일 첫 방송 예정인 엠넷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위’의 MC를 맡았다.

하지만 최근 유노윤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

을 넘겨 밤늦게까지 식당에 머물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있다가 적발됐다.

이후 당시 해당 장소가 불법 유흥주점이며 도주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 김규리, 배우에서 화가로...전시회 열며 새로운 행보

‘신 문자도’, 3월의 3인’展 참여

배우 김규리가 미술 작가로 변신해 대중과 만난다.

김규리는 5월23일까지 오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3월의 3인(展)’과 4월4일까지 종로구 아트센터 일백현에서 진행되는 ‘신, 문자도’전에 참여해 화가로서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김규리는 2008년 영화 ‘미인도’에서 신윤복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3월의 3인’전에서 한국 전통회화 기반의 여러 습자와 ‘일월오봉도’, ‘장생도와 같은 중, 대형 작품을 내었다.

‘신, 문자도’전에서는 서예와 민화의 만남이라는 기획적인 만큼 임옥상 민중화가와 호흡을 맞춰 ‘규리의 그림, 놀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신, 문자도’전에 대해 김규리는 “평소 그려보고 싶던 주제들을 보물창고하듯, 마음의 상자에서 하나하나 꺼내어 나열하였다. 한 작품 마치면 다음 작품을 그려내는 것이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었다”고 밝혔다.

오산시립미술관 측은 “김 작가의 그리기에 대한 열정과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평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초대전을 마련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김규리 작가의 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휴식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